

어휘 해체분석(lexical decomposition)이라는 것에 대하여

朴 秉 洙
(慶熙大學校)

I

변형문법의 표준이론(standard theory)에서는 변형을 어휘삽입변형(lexical transformation)과 비어휘변형(nonlexical transformation)—즉, 문법적변형(grammatical transformation)—으로 양분하고 이 구분을 근거로 심층구조를 정의한다. 한 문장의 통사구조(syntactic structure)를 phrase-marker의 연속으로 보고 이들 phrase-marker들이 각기 변형에 의하여 서로 연결된다고 볼 때, 그 문장에 필요한 모든 어휘삽입변형이 모두 적용된 phrase-marker를 그 문장의 심층구조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심층구조란 어휘삽입변형과 문법적변형을 양분하는 분수령과도 같은 phrase-marker라고 할 수 있다(Chomsky 1971 : 183-185).

그러나 생성의미론자(generative semanticists)는 표준이론에서 정의하는 이와 같은 심층구조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들에게 심층구조란 의미표현(semantic representation) 그 자체이며 이것이 변형과정을 거쳐 표면구조에 직결된다고 보고 표준이론의 심층구조와 같은 특별한 중간 단계의 설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Lakoff 1971 : 232-238; Ross and Lakoff 1967).

이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길은 문법적 변형이 적용된 연후에 비로써 적용될 수밖에 없는 어휘삽입변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휘삽입변형과 문법적변형이라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변형이 어떤 기점을 경계로 해서 나누어져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두 가지 종류의 변형들이 서로 섞여서 흩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당연히 표준이론의 심층구조와 같은 특별한 phrase-marker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생성의미론자의 이른바 어휘해체분석(lexical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방면에서 대표적인 연구로서 McCawley (1968, 1972)와 Postal(1970)을 들 수 있거니와 '우리가 앞으로 검토하려는 것도 이 두 생성의미론자들의 어휘해체분석에 관한 주장이다.

그들이 말하는 어휘해체분석이란 대충 다음과 같이 비형식적으로(informally) 규정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단어(word)라고 하는 단위를 그 의미에 따라 몇 가지의 의미요소들로 해체분석(decompose)하고 (예컨대 *kill*이라는 어휘를 DO+CAUSE+BECOME+NOT+ALIVE 따위로 해체분석하여) 이런 의미요소들이 그대로 그 단어가 관련된 문장의 기저구조(underlying structure) (또는 의미구조 또는 의미표현——이들 셋은 생성의미론자에게는 모두 같은 내용이다)에 나타나게 한 다음 여기에 여러가지 문법적변형을 적용하고 그런 연후에 어휘삽입변형을 적용해서 실제의 어휘를 삽입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분석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어휘삽입변형과 문법적변형이 심층구조를 기점으로 해서 분리되어 있다는 표준이론의 주장은 무너짐과 동시에 그런 심층구조의 존재는 저절로 부정된다는 것이 생성의미론자의 어휘해체분석에 관한 주장의 골짜이다. 어휘해체분석은 “변형의 의미불변동의 가설”(meaning-

preservingness of transformation)과 “기저구조의 극단적 추상성”과 더불어 생성의미론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가설이다.

그러나, 언어이론에 심층구조의 설정이 필요한가? 변형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서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가? 어휘는 의미요소들로 해체분석되어 기저구조에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은 결코 선형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들 문제들이 오로지 empirical questions로 다루어질 때만이 결실이 있는 토의가 될 뿐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관심은 하나의 구체적인 언어현상을 분석, 설명할 때 표준이론의 입장에서 처리할 경우와 생성의미론의 입장에서 처리할 경우를 비교하여 어느 쪽이 현실적으로 보다 나은 설명을 제시하는 결과가 되느냐를 가리어 내는데 두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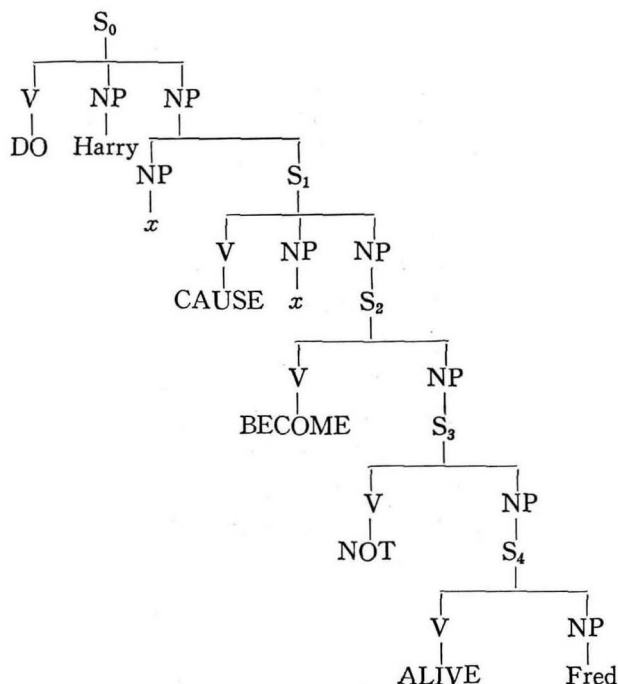
나는 이 논문에서 특히 생성의미론자들로 하여금 어휘해체분석이라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으로 이끌게 한 두 가지 언어 분석, 즉 앞에 든 McCawley의 사역동사 분석과 Postal의 영어 동사 remind의 분석에 사용된 그들의 쟁점들(arguments)을 재검토하여 그들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려 한다. Ⅱ절에서 사역동사 분석을 논하고 Ⅲ절에서 remind동사의 분석을 논한 다음 Ⅳ절에서는 어휘해체분석의 이론적 난관에 대해 언급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Ⅱ

사역동사, 특히 어휘사역동사(lexicalized causative verb)——예컨대, *kill*, *break*, *persuade*, *melt* 등——를 심층구조에서 「CAUSE+자동사」로 해체분석해야 된다는 사역동사 분석은 애초에 G. Lakoff(1970: 41-43, 91-98)에서 출발하여 McCawley(1968, 1972)에 이르러 그 절정에 도달했다. McCawley는 문장(1)의 기저구조를 <그림 1>로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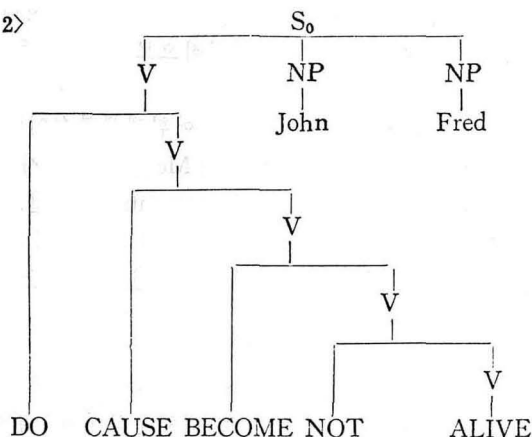
(1) Harry killed Fred.

<그림 1>



〈그림 1〉의 기저구조에 Predicate Raising이라고 불리는 변형이 적용되는데 이는 아래의 S의 동사를 위의 S의 동사로 끌어 올리는 변형규칙이다. 그래서 이 변형은 S₄의 ALIVE를 S₃의 NOT으로 끌어올려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지」를 다시 S₂의 BECOME의 「가지」로 끌어올리고, 이를 다시 S₁의 CAUSE의 「가지」로, 다시 S₀의 DO의 「가지」로까지 올라가서 결국 〈그림 2〉로 귀착된다.

〈그림 2〉



여기에 어휘삽입변형이 적용되어 「DO+CAUSE+BECOME+NOT+ALIVE」가 *kill*로 대체된다. 그런데 〈그림 1〉을 〈그림 2〉로 유도한(derive) Predicate Raising은 문법적변형의 일종임은 분명하므로, 우리는 여기서 문법적변형이 적용된 연후에 비로서 적용되는 어휘삽입변형의 실례를 보게 된다고 생성의미론자들은 말한다. 따라서 표준이론의 심층구조란 허구이다 하는 식으로 그들의 주장이 펼쳐진다.

나아가서 Jerry Morgan(1969)이 발견한 문장(2)의 모호성(ambiguity)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을 〈그림 1〉로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그림 1〉의 분석은 독립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2) Harry *almost* killed Fred.

(3) a. Harry *almost* caused Fred to become not alive.

b. Harry caused Fred to *almost* become not alive.

c. Harry caused Fred to become *almost* not alive.

즉, (2)의 세 가지 뜻은 (3a, b, 및 c)로 풀어 쓸 수 있는데, 이 모호성은 *almost*가 *kill*의 의미요소의 다른 부분을 각각 수식함으로써 빚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a)의 모호성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가 (3a)의 뜻을 가지는 것은 *almost*가 *kill*의 의미의 한 부분인 CAUSE를 수식하기 때문이요, (2)가 (3b)의 뜻을 가지는 것은 *almost*가 BECOME을 수식하기 때문이며 (2)가 (3c)의 뜻을 가질 때는 *almost*가 NOT을 수식할 경우라는 것이다. 따라서 *kill*이 적어도 세 개의 의미요소로 해체 분석되어 나타나는 〈그림 1〉과 같은 기저구조가 아니고는 이런 현상—(2)의 모호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McCawley는 주장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장(2)의 모호성의 설명 방법과 〈그림 1〉의 분석에 관련된 McCawley

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재검토할 단계에 왔다.

Michael Kac(1972)은 문장 (2)의 모호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McCawley와 Morgan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즉 그는 (2)의 한가지 뜻은 “Harry가 Fred를 죽이려고 하다가 도중에 마음이 변해서 그 의도를 실천에 옮기기 (직)전에 그만 두었다”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Harry가 (우연히 또는 고의적으로) 어떤 행동을 수행했는데 그것이 Fred를 죽일만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2)의 모호성을 지적한 다음, 이 두가지 의미차이는 action vs. result라는 동사의 의미자질(semantic feature)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첫째 뜻은 Harry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아니했느냐 하는 데 대한 주장을 할 때 쓰인 (2)의 뜻이고, 둘째 뜻은 Harry가 한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주장을 할 때 쓰인 (2)의 뜻이다, 그래서 첫째 뜻은 (2)의 동사 *kill*이 [+action]을 그 한 의미자질로 포함한 경우이고 반면에 둘째 뜻은 *kill*이 [+result]를 포함한 경우라고 M. Kac는 설명한다.¹

이러한 action vs. result의 의미자질은 *murder*, *assassinate*등의 동사의 의미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동사의 의미자질임이 밝혀진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kill*은 [+action]도 [+result]도 가질 수 있는 모호성을 가진 동사이지만, *murder*와 *assassinate*는 [+action]만을 가지는 동사라는 점이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하면 드러난다.

(4) That Harry killed Fred surprised me.

(5) That Harry { *murdered* / *assassinated* } Fred surprised me.

(4)는 “나를 놀라게 한 것”이 무엇이나에 따라 두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4)에서 나를 놀라게 한 것이 Harry가 Fred를 죽였다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action reading), Fred가 Harry(따위)한테 죽음을 당했다는 결과(result reading)일 수도 있다. 그러나 (5)에는 이런 모호성이 없다. (5)는 단순히 Harry가 Fred를 살해 (또는 암살)하는 행동을 감행했다는 점이 나를 놀라게 했다(action reading)는 뜻뿐이다. 이와 같이 (4)에는 모호성이 있고 (5)에는 그것이 없는 차이는 action vs. result의 의미자질을 인정하고 *kill*은 action verb로도, result verb로도 해석되는 반면에, *murder*와 *assassinate*는 action verb로만 해석된다고 가정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의미자질 설정의 필요성의 한 방증은 action verbs와 result verbs가 주동사(main verb)일 때 어떤 종류의 명사가 그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action verb가 주동사인 문장으로써 어떤 행동의 수행 여부를 주장한다면 그 문장의 주어는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명사 즉, 적어도 animate noun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취해진 동작의 결과를 주장하는 문장의 경우에는 이런 제약이 주어에 가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예측이 드러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 세 문장을 관찰해 보자.

(6) *The bullet { *murdered* / *assassinated* } Fred.

¹ Morgan의 주장과는 달리 Kac는 문장(2) Harry almost killed Fred.는 three-way ambiguous한 것이 아니라 two-way ambiguous하다고 주장한다. Kac에 의하면 (3a)는 대체로 그의 첫째 뜻, 즉, *kill*이 [+action]으로 해석되는 경우의 (2)의 뜻과 같고, (3b)와 (3c)는 결국 같은 뜻으로서 그의 둘째 뜻, 즉 *kill*이 [+result]로 해석되는 경우의 (2)의 뜻과 일치된다고 주장한다. Shibatani(1972)에 의하면 Wallace Chafe도 Kac와 같은 의견이라고 한다.

(7) Harry almost { murdered
assassinated } Fred.

(8) The bullet almost killed Fred.

(6)이 불가능한 이유는 *murder*와 *assassinate*는 action verb이므로 그것은 animate주어를 요구하는데 이 제약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7)은 이 제약이 지켜졌으므로 문법적 문장이다. 또한 (7)에 almost가 있어도 이것이 모호성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murder*와 *assassinate*가 action verb이므로 (7)은 action reading만을 가져서 “Harry가 Fred를 살해(또는 암살)하는 행동을 할 뻔했다”는 뜻 뿐이다. 이 설명은 (8)에서도 잘 들어 맞는다. 주어가 inanimate인 (8)은 주어가 animate인 (2)와는 달리 result reading밖에 없다. almost가 있든 없든 (8)에는 모호성이 없다. 이 사실은 *kill*이 action verb로도, result verb로도 될 수 있으나 (8)의 주어가 inanimate이어서 이것이 action verb는 반드시 animate주어를 취한다는 제약을 위반한 까닭으로 action reading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쇄되고 result reading만 남게 된 데에서 연유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Morgan과 McCawley는 (2)의 모호성이 *almost*의 scope에 기인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Kac는 그 모호성은 action vs. result의 의미자질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장 (4)에서 (8)까지의 각 문장에 모호성이 있고 없음을 관찰하고 그것을 Kac의 제안에 따라 설명해 보았다. 그런데 McCawley-Morgan의 causative analysis 방식으로는 그것을 설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kill*의 경우에 ((2)의 경우) *almost*의 scope가 달라짐으로써 모호성이 초래된다고 설명한다면 *murder*와 *assassinate*의 경우에 ((7)의 경우) 모호성이 없는 사실을 설명하자면 동사가 *murder*나 *assassinate*인 문장에 나타나는 *almost*는 그 scope가 달라질 수 없다는 제약을 부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약은 일반성이 없는 매우 이상한 제약이어서 문장 (2)의 모호성이 *almost*의 scope의 다름에서 연유한다는 Morgan의 설명까지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2)의 모호성이 *almost*의 scope와 전혀 무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까지 한다. 그런 제약이 일반성이 없는 것은 (8)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8)의 동사가 *kill*임에도 불구하고 (8)은 모호하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almost*는 동사가 *murder* 또는 *assassinate*일 때뿐만 아니라 동사가 *kill*이라도 그 주어가 animate가 아닐 때는 그 scope를 변동할 수 없다고 하는 제약을 가해야만 할 것이다. 이쯤 되면 이것은 완전히 ad hoc한 제약이 되고 만다. 즉 *almost*의 scope라고 하는 것은 (2)의 모호성을 설명하는 데에만 유효한 임의적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반해서 action vs. result의 의미자질은 (2)의 모호성을 설명할뿐만 아니라 (4)–(8)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 의미자질은 주어명사가 animate이어야 하느냐 inanimate이어야 하느냐 하는 제약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룬다는 것도 알았다. action vs. result의 의미자질을 받아들이면 lexicon에서 *kill*은 [+action]도 취할 수 있고 [+result]도 취할 수 있으며 *murder*와 *assassinate*는 [+action]만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 두게 될 것이고 이로써 (2)에서부터 (8)에 걸친 문제는 모두 끝난다.² 따라서 (2)의 모호성을 설명하

² Chomsky(1972:149)는 Kac와 좀 다른 방법으로 (2)의 모호성을 설명한다. 의미자질의 차이로서 설명하려는 lexicalist의 입장인 점에서 Kac와 같으나 Chomsky가 제의하는 의미자질이 Kac의 것과 다르다. 즉, Chomsky에 의하면 (2)의 모호성은 시발점과 종착점을 가진 어떤 과정을 뜻하는 동사들의 일반적 의미특성이라고 한다. 어떤 동사가 뜻하는 동작이 시발점에서 시작되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종착점에 도달하여 그 동작이 완료될 때 이런 동사를 “과정을 뜻하는 동사”라고 하자. 이런 동사에

기 위해서는 <그림 2>의 causative analysis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Morgan과 McCawley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Shibatani(1972)는 일본어의 사역동사를 자료로 McCawley의 causative analysis에 반증을 제시했다. Shibatani의 argument는 *cause to die*와 같은 파생사역동사(derived causative verbs)와 *kill*과 같은 어휘사역동사(lexical causative verbs)와의 통사적 차이에서 오는 한 의미차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파생사역동사가 주동사인 문장에 나타나는 어떤 모호성이 어휘사역동사가 주동사인 문장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에 착안하고 이 현상을 설명하는 부담은 McCawley등 생성의미론자가 져야한다고 Shibatani는 주장한다. 그런데, McCawley식 causative analysis로서 이 현상을 설명하기란 매우 곤란하다. 왜냐면 파생사역동사나 어휘사역동사나 다 같이 공통의 기저구조(즉, <그림 2>와 같은 구조)에서 유도한다면 파생사역동사가 주동사인 문장에 있는 모호성이 어휘사역동사가 주동사인 문장에도 있어야 할 것이나, 사실인즉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문장들을 비교해 보자. (a)는 어휘사역동사를, (b)는 파생사역동사를 포함하고 있다. (Shibatani가 제시한 일본어 자료는 한국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국어문장들을 고려하기로 한다)

- (9) a. 잠깐 후에 나는 순이에게 짐을 맡겼다.
b. 잠깐 후에 나는 순이에게 짐을 맡게 했다.
- (10) a. 나는 그를 토요일에 죽였다.
b. 나는 그를 토요일에 죽게 했다.
- (11) a. 영이는 순이에게 자기 책을 주었다.
b. 영이는 순이에게 자기 책을 갖게 했다.
- (12) a. 어머니는 딸을 자기 뜻대로 여자대학에 보냈다.

*almost*가 관련되면 근본적으로 두가지 모호성이 초래된다. 첫째 *almost*는 동작이 시발점에서 시작되지도 않았음을 뜻할 수도 있고, 둘째 *almost*는 일단 동작이 시발점을 출발했으나 종착점에 도달하지 않아서 그 동작이 완료 또는 수행되지 않았음을 뜻할 수 있다. 그래서 (a) The planes almost destroyed the city.는 *destroy*가 “과정을 뜻하는 동사”이므로 그러한 모호성을 갖는다. 즉, 그것은 비행기가 예컨대 폭탄을 투하하지도 않은 경우를 표현하는 문장일 수도 있고(*destroy*의 동작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때), 폭탄을 무수히 투하해서 그 도시를 거의 다 파괴한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일 수도 있다(*destroy*의 동작이 종착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둘째 모호성 안에서 동작이 종착점까지 얼마만큼 가까이 갔느냐에 따라 무수한 모호성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이점은 나 자신의 생각이다. 아래 예문들도 나 자신의 것이다). 이런 상태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좀 더 뚜렷이 드러난다. (b) Foreman almost knocked out Ali. (c) Kaline almost hit a homerun. 예컨대 (b)의 첫째 뜻은 Foreman이 (녹아웃) 펀치를 Ali한테 넣지도 않은 상태를 뜻할 수도 있고, 둘째로 Ali가 펀치를 맞고 비틀거리거나 쓰러져서 녹아웃 당할만한 상태를 뜻할 수도 있다. 그런데 둘째 뜻에서 Ali가 녹아웃을 모면하는 경우의 수는 상당히 많으므로 (b)는 그 수만큼 모호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에서는 Kaline의 배트를 맞고 날아간 공이 홈런이 될만한 모든 경우의 수는 사실상 거의 무한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c)가 갖는 모호성도 또한 거의 무한할 것이다.

“과정을 뜻하는 동사”가 아닐 때는 *almost*가 이런 모호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d) I almost finished reading the book. (e) The car almost bumped against the kerb.등에서는 *finish*와 *bump*가 “과정을 뜻하는 동사”가 아니고, 한 순간에 그 동작이 수행되는 동사이므로 *almost*는 단순히 그 동작이 수행되는 순간 직전에 있음을 뜻할 뿐이다.

어쨌든 이런 의미의 측면에서 보아도 문장(2)의 모호성은 아무 무리없이 설명될 수 있다. Chomsky는 이렇게 말한다. “I see no argument here for the assumption that such verbs as *kill* must be introduced by transformations replacing phrase-markers such as *cause-to-die*.”(1972:150)

b. 어머니는 딸을 자기 뜻대로 여자대학에 가게 했다.

(13) a. 아버지는 그를 대학에 보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렇게 했다.

b. 아버지는 그를 대학에 가게 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렇게 했다.

(14) a. 장군은 사병들을 배불리 먹였다. 그리고 장교들도 그렇게 했다.

b. 장군은 사병들을 배불리 먹게 했다. 그리고 장교들도 그렇게 했다.

위의 각 문장의 짝 (a)와 (b)에서 (a)에 없는 뜻이 (b)에 있는 점에 유의하라. 각 (b)문장은 두가지 뜻을 갖고 있고 그중 하나가 (a)와 같은 뜻이다. (9b)에서 “잠깐 후에”가 “딸”만을 수식하는 경우와 “게 했다”만을 수식하는 경우는 문장의 뜻이 다르다. 그러나 (9a)의 “잠깐 후에”는 “딸졌다”를 수식할뿐으로 이런 모호성이 없다. (10)에서 “토요일에”도 (9)의 “잠깐 후에”와 같은 사정에 있다. 또 (11b)의 “자기”는 영이를 지칭할 수도 있고 순이를 지칭할 수도 있어서 두가지 다른 뜻이 결과되나 (11a)의 “자기”는 주어인 영이를 지칭할 뿐이다. (12)의 “자기”도 이와 같은 사정이다. (13b)의 “그렇게 했다”는 “아버지는 어머니도 그를 대학에 가게 했다”를 뜻할 수도 있고 “어머니도 그를 대학에 가게 했다”를 뜻할 수도 있으나 (13a)의 “그렇게 했다”는 “어머니도 그를 대학에 보냈다”를 뜻할 뿐이다. (14)의 “그렇게 했다”도 이와 같이 (a)와 (b)에서 달리 해석된다.

이와 같이 파생사역동사가 있는 (b)문장은 모호하나 어휘사역동사가 있는 (a)문장은 그렇지 않은 현상은 McCawley식 causative analysis로써는 설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McCawley의 <그림 1>과 같은 분석을 고수하자면 부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위치와 대명사화 또는 제귀대명사화 변형, 그리고 “~게 하다” 변형에 각기 매우 이상하고 일반성이 없는 어떤 제약을 가하지 않고는 별다른 설명 방법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9a)는 “얼마 후에”가 맨 꼭대기 S_0 에서 (<그림 1>과 같은 「나무」에서) 일어날 때 Predicate Raising이 끝까지 적용되어서 유도되고, 그렇지 않고 “얼마 후에”가 “딸다”가 있는 S 에서 일어날 때는 Predicate Raising이 끝까지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을 두면 이 제약 때문에 (9a)와 다른 뜻을 가진 (9b)가 유도된다고 한다면 하는 식으로 설명을 시도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11)과 (12) 및 (13)과 (14)에서 더욱 복잡하고 일반성이 없는 어떤 제약을 가해야 할 것이 예상되는데, 어쨌든 이런 저런 방법으로 “설명”은 가능할지 모르나 그런 방법의 이론적 일반성은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임에 틀림없다.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그림 1>과 같은 causative analysis를 주장하는 생성의미론자들의 부담이다. 어휘사역동사와 파생사역동사를 동일한 실층구조에서 유도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면 이런 문제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는다.

McCawley(1972)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담을 회피하고 Shibatani가 제시한 자료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에 그친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어느 하나도 설명이라고 할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13)과 (14)의 (a)가 모호성을 가지지 않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 McCawley는 “그렇게”는 action verb의 대동사(pro-verb)라는 것과 사역동사에 포함된 자동사를 action verb와 nonaction verb로 양분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즉, (13b)에서 “가게 했다”의 “가(다)”는 action verb인 반면 (13a)의 “보냈다”의 한 의미요소인 “가(다)”는 nonaction verb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13a)에서 action verb의 대동사인 “그렇게”는 nonaction verb인 “가(게)”를 가리킬 수 없고 action verb인 “(게)했다”를 가리킨다.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그를 대

학에 가게 했다(=보냈다)”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13b)에서 “가게 했다”의 “가(다)”는 action verb이므로 “그렇게”는 “가(게)”를 가리킬 수도 있고 “(게)했다”를 가리킬 수도 있다. 이것이 (13a)에는 모호성이 없으나 (13b)에는 모호성이 있는 이유라고 McCawley는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가다”라는 동사를 nonaction verb로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의미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가 action verb만 가리킨다는 그의 주장도 근거없는 얘기다. 아래 (15b)의 “그렇게”가 nonaction verb인 “있(게)”를 가리키지 못하는가 보라.

(15) a. 나는 그 상자들을 책상 위에 두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그렇게 했다.

b. 나는 그 상자들을 책상 위에 있게 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가 action verb만 가리킨다면 “있(다)”는 nonaction verb이니까 그것을 가리킬 수 없고 “게 했다”만을 가리키므로 (15b)에는 모호성이 없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실인즉 (15b)는 (9)–(14)의 (b)의 경우와 같이 모호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렇게”는 nonaction verb도 가리킨다는 것이 확실하다(사실상 “그렇게”는 “그러하게”의 줄임으로서 “그러(하)”가 nonaction verb를 가리킨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nonaction verb는 물론 문장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현상이다. “순이는 예쁘다. 영이도 또한 그렇다”에서 “그렇다”는 nonaction verb인 “예쁘다”를 가리키며, “너는 자유란 사치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에서 “그렇게”는 “자유란 사치다”라는 문장을 가리킨다)

다음에 McCawley는 (11)과 (12)의 (a)에서 “자기”가 main S의 주어만을 가리키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Kuno(1972)가 제안한 채귀대명사화의 한 제약을 응용해 보려하나, Kuno의 설명 자체가 아직도 확실하지 못한 이상 만족할 만한 설명이 안 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Kuno에 의하면 아래 (16a)의 embedded S “메리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에서 “자기”가 Main S의 주어 “존”과 coreference의 관계에 있는 이유는 “존”이 메리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6) a. 존_i은 메리가 자기_i를 만나서 올 때는 흥분한다.

b. *존_i은 메리가 자기_j를 만날 때는 항상 안색이 나쁘다고 한다.

이와 같이 Main S의 주어가 embedded S의 사실을 알고 있을 때는 Main S의 주어와 embedded S안에 있는 “자기”가 서로 coreference의 관계에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coreference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16b)의 main S의 주어 “존”이 메리가 자기를 만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존”과 “자기”는 coreference의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이런 이유로 (16b)는 비문법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더라도 (11a)와 (12a)의 “자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되질 않는다. (11a)의 main S의 주어 “영이”가 “자기”와 coreference의 관계에 있는 이유는 영이가 embedded S의 사실(즉, 순이가 자기 책을 갖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기”가 embedded S의 주어인 “순이”와 coreference의 관계에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순이”가 「자기 책을 갖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불가능하다. 영이가 순이에게 자기의(즉, 순이의) 책을 갖게 해서(즉, 주어서) 순이가 자기 책을 가졌는데 순이가 자기 책을 갖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9)와 (10)과 같은 문장에 언급해서 McCawley(1972)는 어휘사역동사의 한 부분만을 수식하는 부사가 있다는 사실이 그 사역동사를 해체분석하는 <그림 1>과 같은 기저구조를 설정하는 이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사실 자체가 <그림 1>을 지지하는 충분한 이유는 결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어떤 부사가 어떤 동사의 의미구성 요소들 중의 하나를 수식한다는 현상이 그 동사를 해체분석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면 모든 동사를 다 해체분석해야 된다는 지극히 강력한 가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예컨대, “먹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행동+입에 넣다+씹다+삼키다등등」이라고 하고 아래 문장 (17)에서

(17) 나는 12시에 점심을 먹었다.

“12시에”가 “먹다”의 의미요소 중의 어느 하나를 수식한다고 해서(왜냐하면 「12시」는 「먹다」라는 일련의 동작 중 어느 하나의 시간을 가리킬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17)의 기저구조에서 “먹다”를 해체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어휘해체분석이란 완전히 무의미한 장난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어휘해체분석이 적어도 그런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부사가 어떤 동사의 의미요소 중의 하나만을 수식하는 현상이 어휘해체분석의 이유는 될 수 없고, 어떤 부사가 어떤 동사의 의미구성요소 중의 둘 이상의 다른 부분을 수식함으로 말미암아 파생사역동사의 경우와 같은 모호성이 초래되는 현상이 발견될 때 비로서 해체분석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위의 문장 (17)이 어떤 모호성(그것도, “12시에”로 말미암은 모호성)이 있든가 아래 (18)이 “나는 12시에 점심을 입에 넣었고 12시 10초에 그것을삼켰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 비로서 “먹다”를 해체분석할 필요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18) 나는 12시에 점심을 먹었고 12시 10초에 점심을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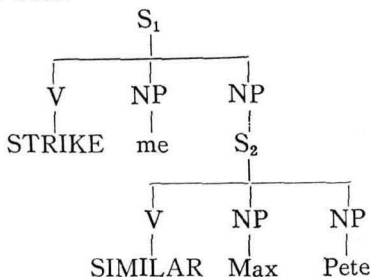
그러나 사실은 (17)에는 모호성이 없고 (18)에 그러한 의미는 없으며 단순히 “나는 10초 간격으로 점심을 두번 먹었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17)이나 (18)의 기저구조에서 “먹다”를 해체분석할 아무런 필요성을 발견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9a)와 (10a)에서도 “잠간 후에”와 “토요일”은 각기 “말겠다”와 “죽었다”의 의미요소의 한 부분만을 수식할 뿐이므로 그것을 <그림 1>과 같이 해체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III

Postal(1970)은 (19)와 같은 문장의 기저구조를 <그림 3>으로 분석하고 remind는 어휘해체분석의 또 하나의 좋은 예라고 주장했다.

(19) Max reminds me of Pete.

<그림 3>



Postal의 *remind* 분석은 (20)과 같은 문장과 (19)와의 동의성(synonymy)에 그 동기를 두고 있으며 (19)를 <그림 3>으로 분석함으로써 (19)와 같은 문장에 가해지는 여러가지 문법적 제약이 (20)과 같은 문장에도 가해진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 a. It strikes me that Max is similar to Pete.

b. I perceive that Max is similar to Pete.

이와 같은 Postal의 *remind* 분석은 여러 차례 그 부당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들어두고 나 자신의 주장 두 가지를 덧붙이겠다.

W.R. Leben(1971)은 *remind*의 한 의미요소가 SIMILAR라고 하는 Postal의 주장에 반증을 제시했다.

*remind*가 SIMILAR, BE ALIKE, RESEMBLE등과 같은 similarity predicate를 그 한가지 의미요소로 포함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similarity predicate이 가지는 논리적 성질을 *remind*도 가져야 할 것이다. similarity predicate의 중요한 논리적 성질들 중의 하나는 그것이 symmetrical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21a)와 (21b)는 동일한 truth condition을 갖는다.

(21) a. Max is similar to Pete.

b. Pete is similar to Max.

즉, (21a)가 진(眞)이면 (2b)도 진이다. 그러나 Postal의 주장대로 (21a)와 (21b)를 각각내포하고 있다는 아래 (22a)와 (22b)는 반드시 truth condition이 같지는 않다.

(22) a. Max reminds me of Pete. (= (19))

b. Pete reminds me of Max.

(22a)가 진이라고 해서 (22b)가 반드시 진인 것은 아니다. Max를 보면 Pete가 생각나지만 Pete를 보면 Max가 생각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similarity predicates는 symmetrical하나 *remind*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그림 3>의 분석에 치명적이다.

다음에 J. Bowers(1970)는 (19)와 (20)이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23a)는 Postal의 주장과 같이 분명히 모순이나 (23b)는 어떻게 보아도 모순이랄 수가 없다.

(23) a. I perceive that Larry is similar to Winston Churchill although I perceive that Larry is not similar to Winston Churchill.

b. Larry reminds me of Winston Churchill although I perceive that Larry is not similar to Winston Churchill.

(23a)는 모순이지만 (23b)는 모순이 아니라는 것은 두 문장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다시 I perceive that Larry is similar to Winston Churchill ((23a)의 주절)이 Larry reminds me of Winston Churchill ((23b)의 주절)과 뜻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또한 <그림 3>의 분석에 치명적인 타격이다.

다음은 나 자신의 제안이다. <그림 3>을 받아들여서 *remind*가 의미적으로 STRIKE+SIMILAR의 합성이라면 *remind*의 부정 *not remind*는 NOT+STRIKE+SIMILAR의 합성일 것이다. 그런데 NOT이 <그림 3>에서 S₁을 부정하면 (NOT+STRIKE) SIMILAR의 뜻이 될 것이고 S₂를 부정하면 STRIKE(NOT+SIMILAR)의 뜻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24)는 two-way ambiguous하여 한가지 뜻은 (25a)와 같은 것이고 다른 한가지 뜻은 (25b)

와 같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24) Larry doesn't remind me of Winston Churchill.

(25) a. It strikes me that Larry is not similar to Winston Churchill.

b. It doesn't strike me that Larry is similar to Winston Churchill.

그러나 이 예측은 사실과 어긋난다. (25a)와 (25b)는 서로 뜻이 다르다. (25a)는 대충 (24)와 같은 뜻이나, (25b)는 (24)와 전혀 다른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24)에는 모호성이 없고 (25a)와 같은 뜻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사실은 <그림 3>에서 NOT은 S_2 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다시 말하자면 NOT이 S_2 에 일어나서 STRIKE(NOT+SIMILAR)로 될 때에만 (24)과 같은 문장이 유도되고 NOT이 S_1 을 부정하여 (NOT+STRIKE) SIMILAR로 되면 그것은 (24)으로 유도될 수 없다. 요컨대, (25b)는 (24)로 유도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제약을 어떻게 어디에 부여할 것인가? NOT 자체에 그런 제약을 가하든, STRIKE+SIMILAR를 *remind*로 변형하는 변형규칙에 그런 제약을 가하든, 그것은 매우 이상하고 일반성 없는 제약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이상한 제약을 부여하는 것을 피하는 길 중의 하나는 <그림 3>과 같은 분석을 포기하는 길이다.

다음에 나는 *remind*에 두가지 다른 뜻(즉, STRIKE-SIMILAR와 CAUSE-TO-REMEMBER)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한 Postal의 주장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싶다. *remind*가 관련된 문장들을 좀 더 깊이 관찰해 보면 이들이 가지는 모호성은 STRIKE-SIMILAR와 CAUSE-TO-REMEMBER의 구분에서 온다기보다 근본적으로 *remind*의 의미는 CAUSE-TO-REMEMBER이나 REMEMBER의 pragmatics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가령 *A reminded B of C*와 같은 상황에서 A가 B로 하여금 C를 기억하게(또는 생각하게 또는 생각나게)하거나 A를 보고 B는 C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 또는 조건은 A와 C의 성질에 따라 그리고 A와 C의 B에 대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관계에 따라 여러가지로 변할 수 있다. A와 C가 그들의 외모나 성격이 비슷하다는 것이 그 한 조건이 될 수 있고, A가 B에게 "Don't forget C"라고 말한 것이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과거에 A와 B와 C가 공동으로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음이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또는 A와 B가 관련했던 일이 B와 C가 관련했던 일과 비슷하다고 보는 B의 견해 자체가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A와 C사이에 전혀 공통점이 없다고 B가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어떤 두 사람이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가장 극단적인 예가 A와 C일 것이라고 B가 생각했고 바로 그런 이유로 B는 A를 보면 C의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모든 경우가 다 *A reminded B of C*의 모호성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그 다른 의미는 모두 A와 B와 C의 관계에서 A로 말미암아 B가 C를 REMEMBER하게 된 것이 구체적으로(또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19) *Max reminds me of Pete.*와 같은 문장에서 *remind*는 STRIKE-SIMILAR의 뜻이고 아래 (20)과 같은 문장에서의 *remind*는 CAUSE-TO-REMEMBER의 뜻이라고 못박음으로써

(20) The secretary reminded me of the appointment.

의미적으로 두개의 다른 *remind*가 있다고 주장하는 Postal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하나의 *remind*가 있을 뿐이나 *remind*의 한 의미요소인 REMEMBER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가능한가, 다시 말해서, 누가 누구 또는 무엇을 어떤 이유로 또는 어떤 조건 아래서 “생각

“하계” 되는가 하는 차이에서 *remind*가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컨대, (19)와 (20)에서 *Max*로 말미암아 *me*가 *Pete*를 생각하게 된 것은 *the secretary*로 말미암아 *me*가 *the appointment*를 생각하게 된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다. 다만 다른 것은 *me*가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된 이유에 있을 뿐이다. 즉, (19)에서는 외모적 또는 성격상으로 *Max*와 *Pete*가 비슷하기 때문에 *me*가 *Max*로 말미암아 *Pete*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며, (20)에서는 *the secretary*가 가령 *Please don't forget the appointment.*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또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the secretary*에서부터 오는 어떤 심리적 연상작용 때문에 *me*가 *the appointment*를 *the secretary*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된 경우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remind*의 뜻을 단순히 STRIKE-SIMILAR와 CAUSE-TO-REMEMBER로 구분함으로써 *remind*가 관련된 문장들의 모호성이 설명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많은 동사들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remind*는 실제 세계의 사실과 복잡하게 얽혀진 동사이므로 그 pragmatics가 분명히 규명되고 고려되지 않는 한 *remind*가 관련된 문장들의 모호성에 대한 설명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할만한 것은 아직 나는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내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remind*는 의미론적으로는 unambiguous하나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석 가능한 것은 *remind*의 pragmatics에 기인하는 것 같다는 것 정도이다. 그리고 적어도 Postal이 제시한 바와 같이 *remind*를 semantics단계에서 두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견해는 매우 부당하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ragmatics의 이해가 semantics의 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으나, pragmatic world에서 관찰한 사실들을 그대로 syntax 또는 semantics에 도입하려 한다든가 semantics를 직접 pragmatics로 extrapolate하려 하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³

IV

이상으로 우리는 McCawley의 causative analysis와 Postal의 *remind* analysis를 검토했다. 이 두가지 분석은 어휘해체분석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이 분석의 타당성이 증명되면 어휘해체분석이라는 작업의 필요성이 또한 증명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가지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제시된 쟁점들이 타당성이 없거나 어휘해체분석을 전제하지 않고도 잘 설명된다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어휘해체분석의 불필요성이 증명된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causative analysis와 *remind* analysis에 사용된 쟁점들으로써 어휘해체분석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어휘를 그 의미에 따라 좀 더 작은 단위들로 해체분석하는 작업은 어떻게든 하기는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어디에서”하느냐에 있다. 생성의미론자는 의미표현(semantic 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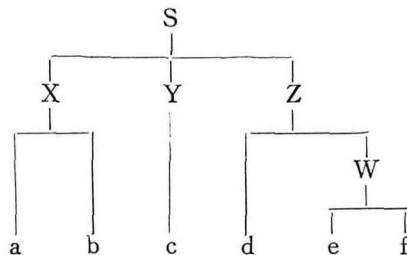
³ 이 문제에 대해 Yehoshua Bar-Hillel (1971:405)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Be more careful with forcing bits and pieces you find in the pragmatic wastebasket into your favorite syntactico-semantic theory. It would be preferable to first bring some order into the contents of this wastebasket as is, to clarify somewhat better the explicandum—to use Carnap’s undeservedly neglected slogan—before embarking on the explication. My little exercise was certainly too short to force you to draw this moral. But, pending further arguments, keep reminding yourself of it.”

presentation) 자체를 심층구조라고 보므로 그것을 심층구조에서 해야 할 것이며, 해석의미론자(interpretive semanticists)는 심층구조를 의미표현으로 분석하는 의미해석(semantic interpretation)이라는 독립된 과정이 있으므로 거기에서 어휘해체분석이 다루어질 것이다. 이 두 견해 중에서 우리는 생성의미론자의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동사와 *remind*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그들의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설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견해를 따르면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있으며 그들의 분석이 의미론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끝으로 어휘해체분석이 심층구조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주장의 이론적 결함 한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이 주장에 의하면 *kill*이나 *remind*는 의미상 합성어이다. 즉, *kill*은 DO+CAUSE+BECOME+NOT+ALIVE의 합성어이며 *remind*는 STRIKE+SIMILAR의 합성어이다. 그러나 표면구조에 나타나는 것은 합성어가 아니라 *kill*, *remind*와 같이 단일 형태소(single morphemes)이다. 이 점은 생성의미론자의 어휘해체분석의 중대한 이론적 결함이다. 그들은 심층구조에 합성어로 표현된 어휘가 왜 표면구조에서 단일 형태소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Postal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즉, 그는 예컨대 *kill*의 경우에서 어휘삽입(lexical insertion)을 할 때 DO+CAUSE+BECOME+NOT+ALIVE 전체를 *kill*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CAUSE만을 *kill*로 대체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는(delete) 방법을 택함으로써 *kill*이 단일 형태소인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CAUSE뿐만 아니라 DO+CAUSE+BECOME+NOT+ALIVE중 어느 것이라도 *kill*로 대체해도 결과는 같다)

이런 Postal의 제안은 확실히 *kill*이 단일 형태소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다른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다. 즉, 그것은 McCawley(1968)가 주장하는 possible lexical item의 개념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된다. McCawley는 어휘가 삽입될 때 그것은 반드시 나무구조(tree structure)의 constituent만을 대체해야 한다는 제약을 둬으로써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어휘와 그렇지 않은 어휘와의 구분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다음과 같은 나무구조에서 *ab*, *ef* 또는 *def*는 각각 constituent이므로 그것이 하나의 어휘로 대체될 수 있으나 *abc*, *bc*, *cd*, *de*, *cdef*등은 constituent가 아니므로 어휘삽입이 될 수 없다(Grinder and Elgin 1973: 160).



이러한 제약이 있으므로 해서 문장(1) Harry killed Fred.의 기저구조인 <그림 1>에서부터 (1)이외에 Harry caused Bill to become dead와 Harry caused Bill to die.가 유도되고 나아가서 이 세문장만이 유도되며 <그림 1>에서 *kill*, *die*, *dead* 이외의 다른 어휘가 삽입될 가능성이 제외된다. 즉, *dead*은 <그림 1>의 S₄의 ALIVE가 Predicate Raising에 의하여 S₃의 V

인 NOT에 Chomsky-adjoin되어 그 둘이 하나의 constituent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어휘로 대치될 수 있게 되어 생겨난 어휘이다. NOT+ALIVE가 다시 S_2 로 predicate raise 되면 BECOME과 더불어 BECOME+NOT+ALIVE라는 새로운 constituent를 형성하게 되므로 이것이 어휘 *die*와 대치되면 *Harry caused Bill to die.*가 유도된다. 다음 *kill*이 삽입되는 것은 S_0 에서 DO+CAUSE+BECOME+NOT+ALIVE가 하나의 constituent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컨대, BECOME+ALIVE, CAUSE+BECOME+NOT, CAUSE+NOT+ALIVE등은 <그림 1>에서 Predicate Raising을 적용한 결과로 생길 수 있는 constituent가 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미요소를 가진 실제 어휘가 없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Postal의 단일 형태소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는 요컨대 McCawley가 제안한 Predicate Raising에 의하여 새로운 constituent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버리고 단순히 여러 의미요소 중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는 방법을 택하자고 한다. 그러니까 *Harry killed Fred*는 <그림 1>에서 임의의 V가 *kill*로 대치되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되어, 유도되며, *Harry caused Fred to become dead.*은 NOT 또는 ALIVE가 *dead*로 대치되고 다른 것은 삭제되어서 유도되며, *Harry caused Bill to die.*는 BECOME, NOT, ALIVE중 임의의 의미요소가 *die*로 대치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삭제되어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McCawley의 제안과는 달리 일종의 collapsing rule인 Predicate Raising 대신에 삭제규칙을 적용하여 어휘삽입을 수행한다면 어휘해체분석과 Predicate Raising으로써 「가능한 어휘」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는 McCawley의 제안은 완전히 무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Postal의 제안은 *kill*, *remind*등 어휘해체분석되어 심층구조에 나타나는 어휘가 단일 형태소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어휘해체분석의 한 장점인 가능한 어휘의 개념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수용할 수가 없고, McCawley의 어휘해체분석은 가능한 어휘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있으나 단일 형태소의 성질은 설명할 수 없는 난관이 그대로 남는다.

REFERENCES

- Bar-Hillel, Yehoshua. 1971. Out of the pragmatic wastebasket. *Linguistic Inquiry* 2: 401-407.
- Bowers, John. 1970. A note on 'remind'. *Linguistic Inquiry* 1: 559-560.
- Chomsky, Noam. 1971.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and semantic interpretation. In Steinberg, D.D. and L.A. Jakobovits(eds.), *Semantics*, 183-216. Reprinted in N. Chomsky(1972), *Studies on semantics in generative grammar* 62-119.
- Chomsky, Noam. 1972. Some empirical issues in the theory of transformational grammar. In N. Chomsky (1972), 120-202.
- Grinder, John T. and S. Haden Elgin. 1973. *Guide to transformational gramma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Kac, Michael B. 1972. Action and result: two aspects of predication in English. In Kimball (1972), 117-124.
- Kimball, John P. (ed) 1972. *Syntax and semantics*. Vol. 1. New York: Seminar Press.
- Kuno, Susumu. 1972. Pronominalization, reflexivization, and direct discourse. *Linguistic Inquiry* 3: 167-195.

- Lakoff, George. 1970. Irregularity in syntax.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 1971. On generative semantics. In Steinberg and Jakobovits(1971).
- Leben, William B. 1971. 'Remind' once more. *Linguistic Inquiry* 2: 419-420.
- McCawley, James D. 1968. Lexical insertion in a transformational grammar without deep structures. *Papers from the Fourth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71-80.
- . 1970. English as a VSO language. *Language* 46: 286-299.
- . 1972. Kac and Shibatani on the grammar of killing. In Kimball (1972), 139-149.
- Morgan, J.L. 1969. On arguing about semantics. *Papers in Linguistics* 1: 49-70.
- Park, Byung-Soo. 1974. Complement structures in Korean: a study of the verb 'ha'. Seoul: Paek Hap Sa.
- Postal, Paul M. 1970. On the surface verb 'remind'. *Linguistic Inquiry* 1: 37-120.
- Ross, John R. and George Lakoff. 1967. Is deep structure necessary? Unpublished paper. Available from Indiana Linguistics Club, Indiana University.
- Shibatani, Masayoshi. 1972. Three reasons for not deriving 'kill' from 'cause to die'. In Kimball (1972), 125-137.

討 論

梁東暉(梨花女大): 여러 언어학자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의 예문 17)과 18)에 있어서 '먹었다'를 해체분석(decompose)하게 되면 '삼키고, 입에 넣고……'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휘해체분석(lexical decomposition)의 개념을, 보통 생성의미론자들이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어휘해체분석을 한다는 것은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언어학적인 의미(linguistic significance)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어떤 언어학적 일반화(linguistic generalization)를 끌어내기 위해 필요할 때에 한해 어휘해체 분석을 하는 것이지 아무때나 막연하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더우기 모든 어휘항목(lexical item)을 우리가 반드시 해체분석해야 한다는 이론도 설 수 없는 것이며, 만일 그런 식으로 무조건 어휘항목을 해체분석해 간다면 decomposition을 어디서 그쳐야 하느냐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朴秉洙: 물론 제가 17), 18)에서 '먹었다'를 어휘해체분석을 시도한 것은 해체분석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틀렸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17), 18)을 예로 든 것은 McCawley가 어떤 어휘의 의미요소 중의 한 부분만을 수식하는 부사가 있긴만 하던 그 의미를 어휘해체분석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 저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가령, 그런 경우에 어휘해체분석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7), 18)을 예로 든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어느 한 부분만을 수식해서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고, 그 중 적어도 2 가지 이상의 부분을 어떤 부사가 수식할 수 있을 때만 어휘해체분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어휘해체분석을 어디서 그쳐야 되느냐는 것은 전연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처음부터 전연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었고 만약 한다면 실제 문장에서 추적 또는 관찰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working hypothesis로서 우선 생각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梁棟錫(外國語大) : Shibatani와 M. Koeger 같은 생성의미론자들이 어휘해체분석 특히 사역분석(causative analysis)에서 동의(synonymy)나 아니냐 하는 것 갖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Shibatani가 Foundation of Language에 “Semantics of Japanese causativization”을 쓰다가 한국학생을 만나 물어보니까 한국어도 된다는 것을 알고 Journal of Linguistics에 한국어의 긴 꼴과 짧은 꼴의 사역(causative)이 동의어가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쓴 논문을 반박한 겁니다. Shibatani의 반박에 대한 답변으로 쓴 것이 오늘 나눠 받은 어학연구(10권 1호)에 실린 “Two causative forms in Korean”인데요, 저는 어휘해체분석하고 꼭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한국어에 있어서 ‘죽이다, 죽게 하다’ 이것은 형태적으로 나온 것이니까, 어휘해체분석을 떠나서라도 이것이 동의어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일은 중요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Shibatani는 동의어가 아니라고 보면서 짧은 꼴은 직접적 사역이고 긴 꼴은 간접적이라고 보죠. 그러나 제 의견은 긴 꼴이나 짧은 꼴이나 관계 없이 전부 문맥이 들어맞으면 직접 간접 두 가지 뜻이 있게 되므로 동의어라고 봅니다.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유도해 내야 하므로 거기에 대하여 모든 부사나 ‘자기’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은 어휘화과정(lexicalization)에 제약을 두면 됩니다. 그 제약이 있어야 할 타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읍니다만 한국어의 경우는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외부 손님을 먼저 태웁시다’ 그래요. ‘타게 합시다’를 써야 할텐데, 왜 ‘외부손님을 먼저 태웁시다’하느냐 하면 ‘타게 합시다’는 간접적이니까 ‘태웁시다’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역시 두 가지 뜻이 다 있다고 봅니다.

朴秉洙 : 어학연구에 나온 선생님의 논문을 읽어 보면 자세한 것을 알게 되겠지만, 제 생각도 전부 ‘죽이다’, ‘죽게 하다’는 서로 다른 뜻이 있지 않은가 생각했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제 논문(어학연구 10권 1호)에도 언급을 좀 했읍니다만, 거기서도 ‘죽이다’, ‘죽게 하다’ 또는 ‘죽이다’, ‘죽게 하다’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뜻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쓸 때는 Shibatani의 논의(argument)를 읽어 보지 못했는데 직접 또는 간접 이런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의 경우 가령 ‘죽이다’는 어휘해체분석(lexical decomposition)할 수 있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죽’하고 ‘이다’로 나타나 있으니까 그럼 ‘죽이다’와 ‘죽게 하다’할 때 뜻이 다르다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죽이다’의 ‘이’와 ‘죽게 하다’의 ‘게 하’는 분명히 다른 요소이므로 반드시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